

부문별 주요 기사

9월 1일~9월 30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9월 1일~9월 30일

대내경제 127

<주민생활>

북한 당국,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응해 연일 자력갱생 강조

북한 최근 기름값 크게 상승

<보건>

북한 어린이 · 여성 영양상태 10년 전보다 악화

대외경제 128

<대북제재>

원유 공급제한 포함 대북제재 결의 통과

<북중관계>

中 독자제재 반대 입장 고수

<북러관계>

북한, 러시아에 철도화 협력 요청

러시아, 北 만경봉호 재개 허용 예정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대내경제

<주민생활>

RFA(9.12), 연합뉴스(9.18), VOA(9.19), 동아일보(9.24)

북한 당국,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응해 연일 자력갱생 강조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2375호 이후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민을 짓은 오직 자기의 힘, 자강력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며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임.

북한 최근 기름값 크게 상승

북한 당국이 8월 하순 며칠 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유 공급소(주유소) 문을 닫고 연유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짐. 이들 연유 공급소는 대부분 군과 당 소속 외화별이 기관 소유로 국가기관이나 다름없는 연유 공급소가 문을 닫자 주민들의 이동 제한 등 일대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소식통은 전함.

이어 한 평양 주재 서방 외교관의 말에 따르면 북한의 6차 핵실험(9월 3일) 이후 9월 평양 내 기름 값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 21일을 기점으로 크게 급등한 것으로 알려짐. 휘발유 가격이 1kg당 1.6유로에서 2.3유로로 44% 급등하였고, 1kg당 1.7 유로에 거래 되던 경유도 2유로로 증가했다고 전함. 현재 휘발유 가격과 경유가격은 올해 초와 비교해 3.1배, 2.4배 증가한 수준이라고 덧붙임.

또한 북한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기름 값은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지는데 특히 북한 북부지역에서 디젤유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함. 지난 8월 29일 기준으로 1kg당 1만 5000원에 거래되던 휘발유는 3주 만에 1만 8750원으로 20% 증가했고, 1kg당 8500원이었던 경유는 1만 2500원으로 약 47% 급등했다고 전함.

최근 유엔 대북제재 2375호가 원유와 정제유 수입량에 상한선을 두면서 중국이 북한에 원유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기름값이 올랐거나 9월 말 추수시기에 농기계 사용 증가 때문에 경유 가격이 급등했다는 분석임. 북한 당국은 6차 핵실험 이후 에너지를 아끼자는 군중강연회를 열어 주민들 사이에 기름 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전해짐.

<보건>

RFA(9.5, 9.15)

북한 어린이·여성 영양상태 10년 전보다 악화

‘2017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백서’ 보고서에 따르면, 영양실조인 북한주민 비율은 10년 전인 2004년~2006년에는 전체 인구의 35%에서 2014년~2016년에는 40%로 증가했다고 밝힘. 특히 어린이와 가임기 여성의 영양상태가 심각한 수준인데, 가임기 여성의 건강상태가 나쁜 것도 북한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함. 실제 영양부족으로 많은 북한 어린이들이 발육부진을 겪고 있으며, 북한의 가임기 여성들 중 32.5%가 빈혈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북한의 건강상태 악화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것이라 지적되고 있으며, 북한은 올해도 유엔의 구호기구들이 지목한 ‘만성적인 식량위기 국가’에 포함되었음.

한편, UNICEF에서는 2017년 상반기 4만여 명의 영양실조 아동을 치료한 것으로 발표했으며, 약170만명의 아동에게 비타민A와 구충제, 영양가루 등을 지원했다고 밝힘.

대외경제

<대북제재>

VOA(9.11), 매일경제(9.12, 9.15, 9.18), 동아일보(9.12, 9.13), 조선일보(9.18, 9.28), 세계일보(9.28)

원유 공급제한 포함 대북제재 결의 통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9일 만인 9월 11일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되었음. 이는 지난 7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결의 2371호를 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취해진 추가조치로 북한 주력 수출품 중 이전 제재에서 제외되었던 섬유 제품이 수출 금지 대상에 추가되고, 북한 해외 노동자 신규 고용 시 안보리 승인을 받도록 함. 특히 단기적이고 결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원유 공급 차단과 관련하여 원유 대북 수출량은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동결하고 석유 정제품 공급은 현재 연간 450만 배럴에서 절반 수준인 200만 배럴로 상한선을 두는 조항이 포함되었음. 최종 결의안의 내용은 미국이 제시한 전면적인 원유 금수 조치나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고용·지불 완전 금지에 비해 후퇴한 것임. 영국과 스위스는 대북 제재 명단을 추가하며 새 결의의 즉각 이행에 나섰고, EU도 지난달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추가 대북 제재 명단을 발표함.

그러나 새로운 결의가 채택된 지 사흘 만에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요구가 불거짐.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실행조치로서 북한 은행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발표함. 이는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들을 미국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함으로써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인데, 사실상 주된 표적은 북한 해외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중국 은행들이 될 것으로 분석됨.

전반적으로 유엔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은 증가하고 있음. 지난해 교역액 기준 북한과의 무역 규모에서 3위를 차지한 필리핀은 북한과의 교역 중단을 발표했고, 북한이 가장 많은 노동자를 파견한 중동 국가인 쿠웨이트는 북한인에 대한 비자 갱신을 중단하기로 했음. 북한의 전통 우방인 베트남도 북한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제재를 회피하고 있어 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이 석탄 수입을 중단하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으로 수출지를 바꾸고 아프리카에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남. 중국 등 외국 밀수업자들은 북한산을 다른 나라 물품으로 둔갑시켜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북중관계>

RFA(9.11, 9.27), 매일경제(9.11, 9.12), 중앙일보(9.23)

中, 독자제재 반대 입장 고수

중국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채택에는 찬성했으나 ‘세컨더리 보이콧’을 규정한 미국의 행정명령에는 반발함.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 당국은 대북 거래와 변경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대외에 보여주기 위한 일시적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난도 제기됨.

중국은 북중 무역 중심지인 단둥시 개발사업의 하나로 항구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며,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이르면 내년 초부터 항구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됨. 대북제재가 강화된 국면이나 새로운 항구가 건설되면 이를 통해 북중 무역량의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또한 중국은 지난 2월부터 중단했던 북한산 석탄 수입을 8월 돌연 재개하여 조치 이전 월평균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북러관계>

서울경제(9.2), 연합뉴스(9.8, 9.29), 중앙일보(9.8), 국민은행(9.12)

북한, 러시아에 철도화 협력 요청

지난 6월 장혁 북한 철도상은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철도국제협력기구 회의에서 북한 내 철도 현대화 사업에서의 협력과 나진-하산을 잇는 국제철도 확충에 필요한 자재 제공을 러시아에 요청했다는 보도임. 나진-하산 국제철도는 2013년 9월 보수사업이 완료되었지만, 북한 구역 내 철도는 심하게 부식되어 붕괴위험이 높으며, 터널과 교량이 많아 평균시속이 약 20~40km 정도임. 북한은 나진항 기점의 화물 이에 러시아는 최근 극동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 차원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북한이 러시아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대북제재로 북중 접경지역의 통관이 강화된 데에 따른 우회조치라는 분석임. 美 사법당국은 2017년 봄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나진항을 오가는 물동량이 증가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음. 외신은 러시아가 북한에게 유류와 더불어 사치품을 공급하는 등 기업들이 북중 간 벌어진 틈을 기회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보도함.

러시아, 北 만경봉호 재개 허용 예정

지난달 북한의 해상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운영을 맡은 러시아 해운회사가 항구 터미널 사용료 등 100만루블(약 1,992만원)의 항만 사용료를 내지못해 나진항에 정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경봉호의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는 보도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해산물 교역과 노동자 신규 등록이 금지당하면서 해운회사의 이익이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임. 만경봉호는 지난 5월에 취향한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첫 정기선이며, 조만간 운행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맺고 입항을 계속할 것이라는 보도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중앙일보(9.21), RFA(9.5, 9.7, 9.25)

아래 표는 9월 한 달 간 국내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국가명 (단체)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UNICEF	2017년 상반기	지원금	390만달러	4만여 명 중증 영양실조아 동과 급성영양실조 아동 치료, 비타민 A, 구충제, 영양가루 등 지원
프랑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	2017년 10월	기술 지원	양식장 기술지원	물고기 생산지원을 위한 평양과 남포지역 양식장 지원 사업
독일 (카리타스)	2017년 여름	지원품	양로원 건축	울 여름 함경남도 함흥시 와 고원군에 양로원 건축 지원사업 시작됨.
한국 정부 (WFP와 UNICEF 경유)	2017년 9월 21일 (지원 결정, 구체적 시기 미정)	지원금	800만달러	북한의 취약계층(영유아, 임산부 등)을 위한 영양지 원 사업에 사용

기사 원문 리스트

- [2017.9.02] 북한 여객선 만경봉호, 항만 사용료 못내 러시아 입학 거부당해 (서울경제)
- [2017.9.05] UNICEF, 2017상반기 북 영양실조 아동 4만명 치료 (RFA)
- [2017.9.05] "北, 제재 피해 석탄수출지 동남아로 변경...아프리카 무기 제공" (연합뉴스)
- [2017.9.07] 프NGO, 평양 양어장에 기술지원 (RFA)
- [2017.9.08] 북한, 러시아에 나진-하산 철도 확충 등에 자재지원 요청 (연합뉴스)
- [2017.9.08] 제재로 코너 몰린 북한, 러시아에 나진-하산 경제협력 요청 (중앙일보)
- [2017.9.11] 中,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앞두고 단속에 '고삐' (매일경제)
- [2017.9.11] 중, 압록강변에 새 항구 확장 공사 (RFA)
- [2017.9.11] 필리핀 "북한과의 교역 중단"...국제사회 대북압박 강화 (VOA)
- [2017.9.12] 中"유엔 새 대북제재 결의 찬성...北, 핵·미사일 개발 안돼" (매일경제)
- [2017.9.12] 北-中 벌어진 틈새 치고 들어오는 러시아 (국민일보)
- [2017.9.12] "북, 지난달 수일 간 갑자기 연유판매 중단" (RFA)
- [2017.9.12] 안보리 대북제재 11일 만장일치 채택... 김정은 빠져 (매일경제)
- [2017.9.12] 헤일리 美대사 "北, 돌아올 수 있는 지점 안 넘었다" (동아일보)
- [2017.9.13] 영국·스위스, 대북제재 명단 추가...유엔 결의 즉각 이행 (동아일보)
- [2017.9.15] EU, 대북 제재 강화...유엔결의 반영 北광물 수출 금지 (매일경제)
- [2017.9.15] 美 "北미사일은 중거리탄도미사일"...안보리 소집·독자제재 촉구 (매일경제)
- [2017.9.15] 유엔 "영양실조 북 어린이·여성 10년 전보다 악화" (RFA)
- [2017.9.18] 北 "하나에서 열까지 100% 자급자족할 때"...연일 자력갱생 독려 (연합뉴스)
- [2017.9.18] '우방' 베트남도 北 단천은행 대표 사실상 추방...대북제재 이행 (매일경제)
- [2017.9.18] 북한 제재회피 백태...물물교환·밀수·국적위조·외교특권 악용 (연합뉴스)
- [2017.9.18] 쿠웨이트도 북한대사 추방... 北 비자 발급 중단하기로 (조선일보)
- [2017.9.19] 평양주재 외교관 "평양 기름값, 핵실험·미사일발사 전후 변화 없어" (VOA)
- [2017.9.21] 정부, 800만달러 대북인도적 지원 최종 의결...지원시기는 추후 결정 (중앙일보)
- [2017.9.23] 중국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 반대" 일선 은행은 북한과 신규 거래 제한 (중앙일보)
- [2017.9.24] 평양 주재 외교관 "北 기름값 최근 50%나 폭등...연초 대비 3배 상승" (동아일보)
- [2017.9.25] 독일 카리타스, 북한 두 곳에 양로원 공사시작 (RFA)
- [2017.9.27] 중국, 8월 북한산 석탄 수입 재개...새 대북제재 발효 직전 거래 (RFA)
- [2017.9.28] '이란식 돈줄 최가'속전속결...타깃은 사실상 中은행들 (세계일보)
- [2017.9.28] 美, 北은행 10곳 제재...달러 돈줄 틀어막기 (조선일보)
- [2017.9.29] 러시아, 북한 정기선 '만경봉호' 운행 재개 허용할 예정 (연합뉴스)